

이시종 "충북 기업 아시아 시장 공략 올인"

충북도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한인회와 손을 잡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집무실에서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인도한인회장·이하 아총연)과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총연은 인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22개국 한인회로 구성된 단체다.

협약에 따라 충북도와 아총연은 충북 지역 수출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해 협력하고 판로 확대, 외자유치 업무를 함께 추진한다. 아시아 지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 1호 사업지로 동남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선택했다. 베트남의 한국 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참이다. K-마켓은 80여개 체인점을 보유한 베트남 내 최대 한인 유통회사다. 이 업체는 특히 충북지역 기업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호 사업으로는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인구 13억명이 넘는 인도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다. 인도 바이어들은 바이

인도·태국·베트남 등 22개국 참여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교류협약 판로 확대·외자 유치 등 상호협력

베트남 유통업체 K-마켓 활용 다양한 기능성 식품 수출 추진 오송 화장품 등 인도 진출도 모색

오 산업이 발달한 충북의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란 도 국제협력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는 홍삼, 김치 등 면역력을 높이는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입지를 굳힌 한인회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북도가 아총연과 손을 잡은 것은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북 수출액에서 아시



이시종(오른쪽서 네 번째) 충북지사와 심상만(다섯 번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이 19일 충북지사 집무실에서 아총연 간부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우호교류 협약서에 서명했다. 충북도 제공

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7월 충북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냈는데, 인도 수출액이 급증한 것이 주효했다. 이 기간 대 인도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배나 늘었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돕기 위해 아총연과 협력해 사이버상담회나 박

람회 같은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총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한인회에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신남방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총연은 이날 협약식 후 충북도내 기능성 식품·화장품 기업과 김치 제조업체를 방문,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한덕동 기자



심상만(왼쪽 네 번째) (사)아시아한인총연합회장과 이시종(다섯 번째) 충북지사 등 관계자들이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도-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공동번영·우호교류 협약

충북도는 1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이하 아총연)와 공동번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총연의 심상만 회장과 주요 임원

들의 충북도 국제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도내 수출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현장 방문의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도내 소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 홍보와 판로 지원, 동남아 진출과 교류확대 그리고 외자유치, 도정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22개국 한

인회로 구성되어 있는 아총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한인회에 마스크 3만장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돕기 위한 신남방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 1호 사업으로 베트남 수출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베트남 최대의 한국식품 유통업체

로 80여개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마켓(K-Market)과 협력으로 도내 기업의 베트남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엄재천 기자

중부매일



충북도-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우호교류 협약 충북도와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가 19일 공동번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내 소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 홍보와 판로 지원, 동남아 진출과 교류확대, 외자유치, 도정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 1호 사업으로 베트남 수출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 장병갑 / 충북도 제공

충북도-亞한인회총연합회 “공동 번영·지역 발전 도모”

우호 교류 업무협약 체결 기업 베트남 수출 지원 추진

충북도는 19일 지사 집무실에서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이하 '아총연')와 공동 번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했다.

도는 아총연 심상만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충북도 국제지문관으로 위촉한 뒤 도내 수출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양 기관은 도내 기업의 수출을 위한 해

외 홍보와 판로 지원, 동남아 진출과 교류 확대, 외자 유치, 도정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총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한인회에 마스크 3만매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돕기 위한 신남방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1호 사업으로 베트남 최대의 한국 식품 유통업체이며 80여 개의 체인점을 보유 중인 K-Market과 협력해 도내 기업의 베트남 수출을 도울 계획이다. /배명식기자



심상만 (사)아시아한인총연합회장(왼쪽)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수출지원을 위한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청매일

2020년 08월 20일 (목)
15면 인물



충북도·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우호교류 협약 충북도가 19일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공동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심상만 아총연 회장과 임원들의 충북도 국제지문관 위촉과 함께 도내 수출기업 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 방문도 이뤄졌다.